

“금남로를 선점하라”

유동인구 10만여명 최고의 집회 장소...기업·시민단체 확보 경쟁 치열

아예 한달간 집회신고내고 “자리 양보해 주오” 읍소도

광주 ‘집회 1번지’ 금남로를 선점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경쟁이 치열하다.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10만 명이 넘어 각계 불만과 요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시위 중심지를 선점하기 위해 장기간 집회신고서 제출, 장소 대여 등의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

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우체국과 무등빌딩 앞길은 올 들어 모두 28건의 집회·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현재

동부경찰에 접수된 전체 집회 건수 112건 중 84건이 유령 집회라는 점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집회가 집중된 ‘시위 중심지’인 셈이다.

특히 5·18 기간을 비롯,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진상 조사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줄을 이으면서 최소 한 달 이상은 기다려야 집회를 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장기간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는 단체도 적지 않다.

광주진보연대는 지난해 2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29일간(오전 9시~밤 9시) 광주우체국 주변에 대한 집회신고서를 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 1항)에는 집회신고 접수일로부터 48시간 경과 후 720시간(최대 30일)까지 집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장소에 다른 단체 등이 집회신청을 낼 경우 신고 순서에 따라 우선권을 주는 현행 집시법 조항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소 선점을 못한 단체의 경우 선점한 단체를 찾아가 “몇 시간만 내어달라”면서 자리를 양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풍경도 연출되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광주우체국 주변에 집회신청을 낸 뒤 선점한 단체의 집회허용시간이 종료되는 데 맞춰 광주우체국·무등빌딩 앞으

로 행진해 집회를 마무리하는 방식도 생겨나고 있다.

집회 신청이 장소 선점의 목적으로 이용되면서 현행 집회허용시간을 720시간에서 168시간(7일)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부경찰 관계자는 “각 단체들이 집회장소로 광주우체국 주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한 단체에서 장소를 선점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 집회신청을 내더라도 시간·장소가 겹치면 우선 순위에 밀려 집회를 못하게 되지 않나”면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악취 원인 조사 제대로 해라”

기아차 굴뚝서 두통·구토 유발 ‘자일렌’ 검출 ‘공장 경계선’ 시료 채취 않고 원인규명 소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인근의 악취(광주 7월 3일자 6면)와 관련, 악취 원인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이 일부 측정 장소에서 유독물질이 배출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6개월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치단체 무책임함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광주시 홈페이지에 “(악취) 호흡기 장애 및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데, 걱정”이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3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4일 기아차 광주공장 배출구(굴뚝) 6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한 곳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인 톨루엔(0.12ppm)·자일렌(2.82ppm)·메틸에틸케톤(0.020ppm) 등이 검출됐다.

자일렌을 제외하면 모든 측정 장소에서 악취방지법상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다만, 자일렌의 경우 이 일대 자일렌

배출허용기준(1ppm 이하)을 감안하면, 수치로는 악취방지법상 기준치를 넘어선다. 자일렌은 페인트·시너의 주원료로, 장시간 노출되면 필수장애·두통·구토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어린이들의 경우 심각한 알러지 질환을 앓을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러나 “공업지역과 기타지역의 사업장으로 구분, 각각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악취방지법은 굴뚝이 아닌, 공장 부지경계선 기준으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는 만큼 애초 측정 장소를 감안하면 기준치 위반 여부를 거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당시 법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장소에서 측정된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난해 측정 결과 유독물질이 검출됐다면 법적 기준에 따른 정밀 조사가 착수,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00W 줄이자” 절전 캠페인 광주시새마을회(회장 김규홍) 회원200여명은 3일 북구청 광장에서 ‘범국민 100W줄이기’ 절전 실천운동 캠페인을 열고 상가 ‘개문영업 안하기’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를 플러그 뽑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고카페인 음료 파는 학교 매점...학생들 무방비 노출

학교 인근 편의점서도 구매 두병만 마셔도 권장량 훌쩍

광주·전남 지역 청소년들은 매점 등 학교 인근 판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YWCA가 발표한 ‘고카페인 음료 판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 학교 매점 42곳 가운데 에너지 음료는 1곳, 액상 커피는 13곳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학교 인근 편의점 25곳, 마트 22곳에서도 고카페인(㎖당 0.15mg 이상 함유) 에너지 음료와 액상커피 모두가 판매되고 있었다.

청소년의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125mg이지만, 시중에서 유통되는 액상커피와 에너지 음료 2병을 마실 경우 일일 권장량을 웃도는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 하지만 지역 청소년들은 고카페인에 대한 위험성 인식 없이 잠을 쫓기 위해 무분별하게 고카페인 음료를 구매하는 것으로 조

수 없게 돼 있다. 카페인을 다량 섭취하게 되면 신경과민, 불면, 흥분, 심장이상, 고혈압, 두통, 우울증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칼슘 흡수를 방해해 골밀도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광주YWCA는 “단 2병만 마셔도 일일 권장량을 훨씬 웃도는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는 커피, 에너지 음료에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노출돼 있다”면서 “각 가정과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고카페인 음료의 위험성을 잘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호남 국도 5곳에 회전교차로 확대 설치

익산국도청, 내년부터

사고 예방과 교통 혼잡 개선 등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회전교차로(Roundabout)가 호남지역 국도에 확대 설치된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청장 유성용)은 3일 국토부의 병목지점 개량 5단계 사업에 포함된 호남지역 국도 5곳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회전교차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전교차로 사업 대상에 포함된 곳은 국도 23호선 부안군 행안면 송정교차로와 국도 24호선 남원시 운봉읍 복천 삼

거리, 국도 13호선 담양군 담양읍 백동교차로, 국도 15호선 담양군 무정면 오례교차로, 고흥군 동강면 현천교차로 등이다.

회전교차로는 지난 2010년부터 교통지체 및 교통사고 잦은 지점, 환경오염 유발지점 등을 대상으로 설치 운영 중이며, 전국적으로 총 364개소가 운영 중이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통행시간도 단축되는 효과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입증되면서 국도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마사지숍 취객 “지갑 분실했다”며 업주·손님에 욕설 행패



○...호텔 마사지 업소를 찾은 30대 남성이 서비스를 받고 난 뒤 “지갑을 분실했다”면서 30분 가까이 소란을 피우다 업주의 신고로 경찰서행.

○...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한모(38)씨는 이날 자정 무렵 서구 차평동의 한 호텔 내 정모(여·52)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뒤 지갑 분실을

이유로 업주와 손님을 향해 마구잡이로 욕설을 내뿜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

○...업주의 신고로 붙잡힌 한씨는 경찰에서 “잠들 사이 주머니에 든 지갑이 사라진 사실을 깨닫고 항의했는데 사과도 없이 요금만 달라고 하길래 소란을 피웠다”면서 “술을 마신 탓에 지갑 분실 장소는 정확히 생각이 나질 않는다”는 등 횡설수설. /김형호기자 khh@

신축원룸매매(전대2분)

4층 (용봉지구 미래A역코너) 르까프 매장 뒷, 군산아구찜 앞

룸21개 (1층상가 2칸, 4층 고급주택 1개 옥탑) (엘리베이터완비, 정남향, 등기완료)

월수익 880만 (1년 수익 1억5000만 발생)

매가 12억 (보2억 용3억 실투자 6억)

신축원룸매매 4층 (전대정문1분, 전대후문1분)

룸12개 (1층 점포, 4층고급주택, 옥탑)

월수 500만 (1년 6000만 수익발생)

매가 6억7천 (보4천 용1억2천)

(주)신한 010-6670-9800

상가매매 · 오피스텔매매(수익성)

- ▶북구 우산동 7층 상가건물매매 (우산동 구호전사거리 목욕탕)토지96평 건물 565평 월수800만(주인직접경영시 1000만발생)매가11억(보2억 용4억5)
- ▶수원지구 상가매매3층 한솔빌딩(4층중 3층) 85평(신한은행 두시,모아엘가A 상가앞) 매가13억5천(보3천 용2억5)월수익 200만, 1년 2400만)
- ▶수원지구 상가 매매 3층(엘스타빌딩)(4층중 3층) 62평(롯데마트 옆 서해남동 쪽) 매가 2억5천(보2천 월 120 99천)
- ▶첨단지구 상가매매2층(대상오션스파)(8층중 2층) 62평(부영APT앞) 매가1억7천(보1천 월 70 99천)
- ▶나주시 삼영동 2층 학원건물매매 매가1억9천(토지205평 건135평 용1억2천)
- ▶북구 산인동 2층 상가주택매매 매가 4억2천(신안사거리 무등경기장 쪽)

▶쌍용동원룸형 오피스텔매매(2층)원천역 1번 출구 2분 (울수리 전제제투 신규교체 임대완료, 주인거주가능) ①11평 매가3천4백(보200 월27 51천) ②12평 매가3천5백(보200 월30 51천)

▶상무지구 오피스텔매매(3층 정연)한국은행 앞 상무지구 현대 APT앞 30평 매가 1억9천(할인가 → 1억5천(용 6천가능))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매48평(사무실/테리어 무료제공) 매가 1억5천(할인가 → 1억2천(즉시입주가능 시비없음))

신축원룸임대 (용봉지구 미래APT 옆)

버스정거장 3분에 있음 신축 4층, 룸 21개 엘리베이터 완비, 정남향

32인치TV,세,냉,에, 인터넷, 유선 불발이, 신발장, 수도 무료제공

첫입주자에게사은선물증정 원룸 보200 월30만/투룸 보300 월40만

상가임대(수원지구, 북구)

- ▶수원지구 3층 25평 임대(한솔빌딩)신한은행 뒷, 모아A 상가앞 보1천50만(시비없음)
- ▶수원지구 3층 62평(엘스타)롯데마트 옆, 해남공단 4번 쪽보2천 월120(분할가능)
- ▶수원지구 1층 18평(한도빌딩)대방 5차 APT후문앞보2천 월120만(시비없음)
- ▶북구 우산동 1층 80평(구호전사거리 무등장레스토랑) 보3천 월150만(식당, 카페, 당구장, 호프적합)
- ▶나주 삼영동 학원1층(70평)2층(60평)-상담후결정

(주)신한 010-6670-9800 / 062)952-5584

(주)대신경매

- 이제 경매로 시작해서 부자되세요
-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컨설팅 해 드립니다
- 건축설계, 건축시공, 리모델링(무료상담)

근린시설/근린상가/근린주택 ▶ 수익성 물건

- 동구 산수동 근린시설(대 275㎡ 건246㎡) 감정4억6, 최저 3억2, 투자적합
- 광산구 신항동 근린시설(대2000㎡ 건909㎡) 감정18억5, 최저10억4, 대로변 6차선
- 동구 대인동 근린시설(대183 건152㎡) 감정1억6, 최저6천9백, 대인시장대
- 북구 각화동 근린시설(대1123㎡ 건605㎡) 감정8억6, 최저4억8천, 각화시장부근
- 동구 충장로 근린시설(대713㎡ 건500㎡) 감정가11억, 최저4억9천7, 충장로5가
- 서구 양동 근린시설(대809㎡ 건1108㎡) 감정17억, 최저9억5천
- 서구 화정동 근린시설(대1094㎡ 건4489㎡) 감정가41억, 최저28억8, 금호월드옆
- 북구 신안근린시설(대951㎡ 건802㎡) 감정가26억, 최저14억8
- 동구 소태동 근린상가(대100㎡ 건272㎡) 감정2억2, 최저1억, 주거상가
- 동구 수기동 근린시설(대330㎡ 건1283㎡) 감정11억8, 최저5억3, 투자적합

주 유 소/공장

- 광산서봉동 주유소(대1821㎡ 285㎡) 감정가11억4, 최저8억2천, 영평도로
- 영암군 삼호읍 주유소(대918㎡ 건1292㎡) 감정가 26억4 최저18억4

APT/주택/빌딩

- 광산구 신항동 APT(대지62㎡ 건125㎡) 감정가2억5, 최저1억7천, 주거문화
- 남구 봉선동 APT(대지32.58㎡ 건59.4㎡) 감정가 8천9백, 최저3천9백2 주거문화
- 북구 중흥동 주택(대지254㎡ 건235㎡) 감정가 2억, 최저1억5천, 전남대 부근
- 상무지구 정연오피스텔 임대 3층 30㎡ (보증금 2천, 월120만) 매매가능 내부 인테리어 시설 무료제공

대지/토지

- 동구 계림동 대지(대지511㎡) 감정가6억9, 최저4억9천, 광주고 바로 앞
- 동구 충장로 대지(대지298㎡) 감정가5억, 최저2억2천, 충장로 유동인구 많음
- 광산구 소촌동 대지(대지1956㎡) 감정가20억, 최저20억, 광송간도로 송정역
- 광산구 송정동 대지(대지72.9㎡) 감정가1억2천8, 최저9천, 코너토지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임대 6층 48평(보증금 1천, 월90만) 매매가능

오피스텔 및 특수물건

- 서구 차평동 상무지구 골든오피스텔(대428㎡, 건1907㎡) 감정 3억5천 최저 1억6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대205㎡, 건75㎡) 감정 1억 최저 4천5백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대32.8㎡, 건119.3㎡) 감정 1억4천3 최저 6천4
- 북구 신안제일오피스텔 (대5.81㎡, 건21.7㎡) 감정 3천9백 최저2천7백9십
- 서구 차평 수림 오피스텔(대7.6㎡, 건44.1㎡) 감정 6천1백 최저4천9백

건축시공 설계부터, 임대 매매 리모델링까지 책임지고 무료상담해드립니다.

경매 함께 가족처럼 같이 공동하십시오
상가,대지,근린시설 주택,APT,전원취급함

010-6832-9700 / 062)512-8080